

# 2005년 번역출판의 풍경과 해법

## 대중의 외국어 식별능력과

## 인터넷으로 피곤해진 번역가들

번역문화 발전 위한 출판사·번역가들의 각성 있어야 | 열악한 대우개선·출판주체의식 함양 등도 필수

지난 3월 당시 200만 부 이상 팔린 《다 빈치 코드》가 오역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문제의 발단은 코리아해럴드 신문사 부설어학원에서 시작됐다. 영한번역 전문반 강의 중에 요즘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 빈치 코드》를 원문과 함께 비교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수강생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다 빈치 코드》번역서 11쪽에서 28쪽까지의 내용을 대조해 본 결과 오역이 한 쪽 당 평균 2.3개씩에서 많게는 4.5개까지 나온 것이다.

미디어다움을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오역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결국 이 책을 출판한 베텔스만코리아<sup>현 대교베텔스만</sup>는 오역을 인정하고 25판부터 스틸러스<sup>현 전문번역가인 이창식</sup> 씨에게 감수를 맡겼고, 최근 《다 빈치 코드 *Illustrated Edition*》을 새롭게 출간했다.

당시 강의를 진행한 흥정희<sup>번역가협회 회원</sup> 강사는 “단어를 찾거나 배경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진 않았을 것이다”며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문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과 사회 전반 외국어 실력 향상

#### 오역시비의 한 원인

《다 빈치 코드》가 워낙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밀리언셀러다 보니 새롭게 번역한다는 소식이 한 방송사 뉴스에 보도되는 등 주목을 받긴 했지만 오역 시비는 비단 이 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의 사례를 보면, 19세기 독일 예술사학계의 태두인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역작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sup>푸른숲</sup>와 일곱 번역자들을 동원해 기획한 《도스트예프스키 전집》<sup>전25권</sup>이 전집은 오역시비를 겪은 후 결국 보급판으로 18권까지만 나왔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 로버트 풀럼의 《세상에 이럴 수가》<sup>김영사</sup> 등도 오역문제로 일부 출판사에서는 리콜까지 하는 등 심하게 곤역을 치른 경우다. (박명욱의 글 〈출판계에 이는 소비자 운동의 조짐〉 참조)

또한 성균관대학교 이재호 교수의 문제 제기로 일부 내용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이윤기의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영미문학 완역본 572종 중 읽을 만한 추천본은 62종<sup>11퍼센트</sup>에 불과하다고 밝힌 《영미문학, 좋은 번역을 찾아서》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의 오역 시비는 어학실력과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 해외유학 등으로 과거에 비해 원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오역에 관한 문제가 인터넷을 타고 쉽게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도스트예프스

키 전집》《세상에 이럴 수가》 등은 인터넷을 통해 문제가 확산된 경우다.

하지만 오역시비에 휘말린 출판사나 번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내심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역문제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번역가 이창식 씨는 《다 빈치 코드》를 감수하기는 했지만 또 찾아보면 오역이 나올 것이다”며 “완벽하지 않은 두 개의 언어가 만나는 이상 번역은 정답을 찾기 힘든 문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때문에 오히려 오역 시비는 그 책이 그만큼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 최저생계비 수준의

#### 열악한 대우도 오역 부추겨

《영미문학, 좋은 번역을 찾아서》에서 지적된 문제는 어떤 책에 오역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나온 번역서 중 믿을 만한 번역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장의 편집자들과 번역자들은 현재의 출판 시스템으로는 훌륭한 번역서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번역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열악한 대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변역출판의 질을 높이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역설적으로 이는 출판사가 쉽게 번역서에 손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을 요청한 한 편집자는 “출판사도 번역료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번역자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출판사에서 알아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절원고지 매수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인세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을 경우 현재 번역가들이 받는 원고료는 장당 3,000원 내지 3,500원 정도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다. 부지런한 경우 한 달에 보통 600~700매를 번역한다고 봤을 때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나마 일부 잘나가는 번역가들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받는 번역료는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출판사 의뢰 수동적 번역,

#### 대학교수들 '업적평가도움 안돼' 외면

번역가 중에서도 꽤 '잘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과학책 전문번역가인 이한음 씨는 직업만족도를 물어본 질문에 “5로 나누었을 때 3 정도 된다”며 “하지만 나

이가 먹을수록 원고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인으로서의 박탈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번역가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번역할 책을 고를 수 없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번역을 하고 싶은 책이 있어 알아보면 이미 에이전시들이 계약해 놓았거나 번역본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번역가들은 출판사의 의뢰로 번역에 임하게 된다. 여기서도 일부 잘나가는 번역가는 의뢰 오는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결국 제3자의 동기 유발에 의존하다보니 번역의 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이 번역출판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승진과 채용에 기준이 되는 교수업적 평가에 저술과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들은 대학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힘도 덜 들고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논문만 쓰려 하지 단행본 저술이나 번역은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성균관대 이재호 명예교수는 “영문학 교수에게 번역을 하지 말고 논문만을 쓰라는 것은 무용가에게 무용은 하지 말고 논문만 쓰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물론 편집자의 입장에서도 교수를 선호하지 않는 까닭이 있다. 상대적으로 원고료가 비쌀 뿐 아니라 원고 납기일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교수들은 직접 번역을 하지 않고 대학생들에게 초벌번역을 시켜 자기의 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다.

#### '번역가의 집' '사이에' 등 해법 고민해야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이 이렇다면 시간이 지나도 번역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번역자에게 오역이 숙명이듯, 대한민국 국민 역시 오역된 책을 읽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역설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질 좋은 번역을 위해 출판사나 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번역출판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재천 교수는 “일본의 과학이 짧은 시간 내에 발달하는 데 번역의 힘이 컸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교수를 비롯해 좋은 번역자들이 번역 작업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여 뛰어 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시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번역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번역과 번역가들》(지유미 저음, 송태욱 옮김, 열린책들 참조) 박경리 선생이 원주에 세운 토지문화관과 같이 번역자들이 일정 기간 숙식과 집필 공간, 그리고 서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받으며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유럽만의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곳엔 자국의 번역자보다 세계 각국의 번역자들이 모이는 게 특징이다.

또한 출판기획·번역 네트워크인 '사이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만한 모델이다. 뜻이 맞는 번역자들끼리 모여 개별적으로 활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서로 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뿐만 아니라, 먼저 출판을 기획해 출판사에 제시하는 등 출판문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도 생각해 볼 일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번역가의 집”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번역가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번역가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

취재 신동섭 기자